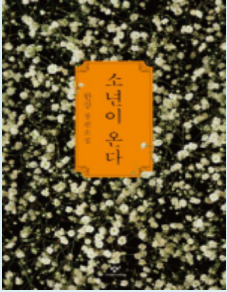


한강

소년이 온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남겨진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 드러낸 소설. 이탈리아 문학상 말라파르테상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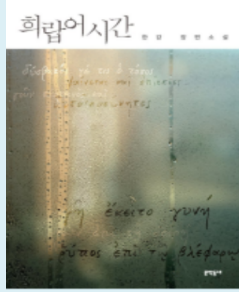
제주4·3사건을 다룬 장편소설. 가족과 이웃의 비극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다짐.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연작소설집.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여자는 그 일을 시작으로 점점 파멸을 향해 간다.

희랍어 시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

검은 사슴



한강의 첫 장편소설. 기억상실에 걸린 한 여자와 그녀를 찾아 탄광으로 떠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탄광에서 사진을 찍는 장에 대한 이야기.

내 여자의 열매



식물이 된 아내,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 등 외로운 인물들에 대한 단편소설집

노랑무늬영원



손을 다친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된 화가의 이야기 '노랑무늬영원' 등을 수록한 단편소설집

바람이 분다, 가라



친구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진실을 파헤치는 주인공의 이야기.

흰



시처럼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

그대의 차가운 손



사람의 몸을 본뜬 조각품을 만드는 한 조각가의 실종과 그가 남긴 이야기.

디 에센셜: 한강



장편소설 '희랍어 시간',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 돌', 시와 산문 등 한강의 여러 작품들을 선정 하여 엮은 책.

내 이름은 태양꽃



어두운 흙속에서 돌아난 새싹이 고난을 겪으면서 태양꽃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어른을 위한 동화

눈물상자



어른을 위한 동화.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눈물을 흘리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인으로 먼저 문단에 등단했던 한강의 첫 번째 시집.

여수의 사랑



한강의 첫 소설집.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던 장소, 고향 여수에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 '여수의 사랑'을 포함한 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황순원 문학상 작품집. 결혼 후 부당하게 퇴사 권고를 받고 출근투쟁을 하던 직장 선배를 회상하는 내용의 단편 소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 수록되어 있다.